

500개 에너지 기업 공동 유치...전력연구 나주분원 설치

광주시·전남도·나주시·한전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성' 협약

기업유치 협의체 구성...임주기업 각종 인센티브 등 제공
한전 2000억 펀드 조성 中企 지원·지역대학 채용박람회

광주시와 전남도, 나주시 등 지자체와 한국전력 등 4대 전력그룹사가 공동으로 대기업 유치를 나서기로 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21일 한국전력 본사에서 한전 등 4대 전력그룹사와 빛가람 혁신도시에 에너지 선도기업, 연구기업, 기관 500개를 유치하는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성' 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환익 한전 사장, 최외근 한전KPX사장, 임수경 한전KDN사장, 유상희 전력거래소 이사장과 이낙연 전라남도지사, 윤장현 광주시장, 강인규 나주시장이 참석했다. 한전은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국내부사장을 팀장으로 '빛가람 에너지밸리 추진 경영진 T/F'를 운영, 오는 5월까지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성 로드맵'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유치 목표 대기업 현대, 효성, 일진, LS 등=지자체와 한전 등 4개 전력그룹사는 공동으로 전방위 기업 유치를 나선다. 대기업 가운데 현대, 효성, 일진, LS 등을 대상으로, 공장 신증설 등 투자계획을 사전에 수집하고, 기업별 신수종·신사업 분야를 집중 공략하기로 한 것이다. 또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 등 대기업 관심 분야 협력사업으로 이전을 유도할 방침이다. 한국전력은 대기업 최고경영자 간 교류를 통해 대기업 이전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이 밖에도 한전은 에너지밸리 조성계획을 통해 지자체와 협력해 2020년까지 기술선도 에너지기업, 연구소, 단체 등 500개 기업을 유치해 빛가람 혁신도시와 광주·전남권 전략산업 벨트를 연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한전KDN,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우정사업정보센터 등이 힘을 보태 2020년까지 6년간 700

■에너지 밸리 조성 협약 주요 내용

분야	사업 내역
대기업 유치	현대, 효성, LS 등 신수종·신사업 중점 공략, 한국전력 측 대기업 최고경영자 간 교류와 지자체 등 전방위 공조
중소·중견기업 유치	2020년까지 한전 500개 기업 등 주요 공공기관 700개 기업 유치, 기업유치 공동협의체 구성
지역중소기업지원	고창전력시험센터 무료 시험, 자재검사처 분소 설치, 전력연구원 나주분소 설치, 2000억원 규모 펀드 조성해 이자 지원 및 직접 투자
지역대학 및 인재 채용	연 2회 지역대학 순회 채용박람회 개최, 대학 추천 전형 및 인턴 확대

개 기업을 유치해 혁신도시를 에너지·ICT 융복합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5·6·700' 기업유치 프로젝트를 실시하기로 했다.

투자설명회 개최 등 기업 유치 실현을 위해 지자체와 이전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기업유치 공동협의체'도 구성된다.

유치 대상 분야는 전기·태양광·에너지저장장치(ESS)·마이크로그리드(MG) 등 에너지 분야, 전력 IT·기자재 제조·중전기 분야 등이다.

◇전력연구원 나주 분원·자재검사처 분소 등 설치=지역 내 전기·전력 관련 부품 조달을 위해 빛가람 혁신도시 내에 전력연구원 나주분원, 자재검사처 분소 등이 들어선다.

한국전력 등은 전력연구원 나주분원을 설치해 R&D분야에 매년 100억원 이상 집중투자하고, 성과를 내는 '스타 연구원'을 포상하기로 했다. 또 에너지밸리 센터를 건설하는데 있어 한전 등 4개사가 실험장비, 컨설팅 등 소프트웨어, 지자체가



21일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한국전력에서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성협력 MOU체결식이 열렸다. 왼쪽부터 최외근 한전KPS사장, 임수경 한전 KDN사장, 유상희 전력거래소 사장,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 윤장현 광주시장, 이낙연 전남도지사, 강인규 나주시장.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부지 및 건립·관리 비용 등 하드웨어를 마련하기로 했다. 2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펀드를 출연해 이자도 기업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에너지 신산업 유망기업의 지분을 사들이는 과감한 투자도 계획하고 있다. 전력분야 소프트웨어기업 등 ICT기업이 우선 대상이다.

빛가람 혁신도시 내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고창전력시험센터에서 무료로 장비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혁신도시 내에는 자재검사처 분소를 설치해 시험검사를 분산 수행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부품을 한전 등이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법·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 생산 부품을 대해서 우선 구매, 지역거점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지역대학 순회 채용박람회 등 인재육성책도 포함=지자체와 이전기관들은 오는 2020년까지 에너지 전문인력 2000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대학생 R&D 연수, 송배전 전력기술 캠프, 고등학생 송배전 기

초반 등 연수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지역대학 연 2회 순회 채용박람회를 갖고 개별·집단 상담을 통해 인재를 선발하기로 했다. 대학 추천 전형과 인턴 채용도 늘릴 방침이다.

지역 기업들을 위해서 빛가람 동반성장 페스티벌 개최 등도 약속했다. 해외 수출 및 품질 지원 대책으로 올해 독일, 멕시코 등 7차례 열리는 국제전시회 참가비는 물론 기자재 공인인증시험 비용, 경영시스템 및 안전보건인증 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미래유망기술 발굴을 위해 연간 100억원을 투입해 지역 R&D 공모 또는 제안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한국전력 등 전력그룹사들이 대기업 유치를 하는 계획을 내놓은 만큼 지자체에서는 최선을 다해 공조할 방침"이라며 "지자체와 4개 전력업체가 상시 협의 시스템을 마련해 지역의 이익을 추구하기로 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사람 마음을 얻어 350년간 세상 지배



김은영의 '그림 생각'

(100) 메디치 가문

감히 공자의 '논어'를 읽는다고 말하기는 쑥스럽지만, 최근 한자공부 겸 수양 겸해서 '논어한글역주'를 접하고 있다. 2500여 년 전의 가르침이 오늘날에도 어찌면 이리도 와 닿는지 새삼 놀람기만 하다.

얼마 전 우리 사회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논어의 한 대목이 떠오른다. '가난하면서 원망하지 않기는 어렵지만, 부자이면서 교만하지 않기는 쉽다(貧而無怨難 富而無驕易)'는 구절이다. 가난하면 여러 가지 불만이 많기 마련이지만 부자는 그 여유로움으로 마음만 먹으면 남을 위해 베풀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 최고의 부자 가문으로 꼽혔던 '메디치 가'는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을 헌정한 가문이자 미켈란젤로, 갈릴레이, 라파엘로 등 많은 예술가와 학자들을 후원해 르네상스를 꽃피웠다. 350년간 세상을 변화시켰던 메디치가의 중심에는 코시모 데 메디치를 비롯, 피에로, 로렌초 등 위대한 지도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메디치 가문의 마지막 후손인 안나 마리아 루이사는 임종 직전에 피렌체 바깥으로 반출하지 않는다는 단 하나의 조건을 약속받고 14세기부터 조상들이 수집해 온 모든 예술품을 피렌체 시민들에게 기증한다.

그 가운데 보티첼리의 '코시모 데



보티첼리 작 '코시모 데 메디치...'

메디치의 메달을 들고 있는 청년'(1474년 경 작)은 의미 있는 작품이다. 최고의 인문경영자로서 피렌체 시민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고 이탈리아의 국부로 불렸던 코시모 데 메디치의 정신이 피렌체 청년의 품에 영원히 간직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어서다.

김상근교수(연세대)는 메디치 가문의 이야기를 다룬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에서 "지금도 피렌체 사람들이 메디치 가문을 자부심과 명예의 상징으로 기억하는 이유는 가문의 역사가 이어졌던 350년 동안 사람에 관심을 두고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다"고 설명한다. 메디치 가문이 사람의 마음을 얻었을 때 사업은 번창했고, 예술은 극단의 미를 표현했으며, 이탈리아의 난세는 평정되었다는 것이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박사>

고령화로 지방재정 내년부터 적자 전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전망
2040년엔 적자 408조

인구 고령화로 인해 내년부터 지방재정이 적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21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장래연구변화와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현 제도가 유지되는 가운데 인구고령화 추이가 지속된다면 당장 2016년부터 지방재정이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향후 세입·세출의 증가속도에 따라 낙관, 비관, 평균으로 나눠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낙관적 시나리오로는 세입 추정치의 상한과 세출 추정치의 하한을 결합한 것으로, 세입이 2012년 179조 5000억원에서 2040년 777조 8000억원으로 연평균 5.4% 증가하는 동안 세출은 171조 4000억원에서 640조 5000억원으로 4.8%씩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세입 추정치의 하한과 세출 추정치의 상한을 결합한 비관적 시나리오를 보면 세입은 179조 5000억원에서 368조 6000억원으로 연평균 2.6%씩 증가하고 세출은 171조 4000억원에서 1322조 5000억원으로 7.6%씩 상승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낙관 시나리오대로면 2040년까지 세입이 세출보다 많아 지방재정이 흑자 상태로 유지된다. 실현가능성이 큰 평균 시나리오를 보면

지방세입은 179조 5000억원에서 연평균 4.2%씩 늘어나 2040년 573조 2000억원에 도달하지만, 세출은 6.4%씩 증가해 171조 4000억원에서 981조 5000억원으로 불어난다. 복지확대 추세에 따라 세입이 세입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면서 지방재정은 2016년부터 적자로 전환하고, 이후 적자폭이 계속 커져 2040년 세입추정치의 71.2%인 408조 3000억원에 이르게 된다. /연합뉴스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 햇살론대출
- ☑ 임대보증금대출
- ☑ 정부정책자금대출
- ☑ 일일상환대출

※ 근저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서양새마을금고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